

'60만 번의 트라이' 영웅들 마침내 고국 땅에 트라이하다

(재일조선인 오사카조고 럭비부 다큐멘터리 영화)

재일조선인 럭비팀 첫 전국체전 참가

'오사카조고 신화' 주역 오영길 감독 소속 선수 출전 반대 팀 일일이 설득 럭비 발전 넘어 스포츠 교류 이바지



겹친다. 많은 일본인들이 "좋은 실력의 조선 출신 선수들이 (럭비 인프라가 부족한) 한국을 찾기도 대학리그에 전념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며 만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오 감독은 의지를 꺾지 않았다. 탁월한 지도력, 남다른 욕심과 열정을 통해 일본 럭비계가 인정하는 성공시대를 개척한 그다. 올해 초 일본의 유명 실업팀 NTT 도쿄모 스퀘어로 자리를 옮긴 그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사카조고를 이끌었는데, 6년 연속(2009~2014년) 지역리그를 평정하는 한편 꾸준한 오사카대표 전국대회에 출전했다. 성과 또한 놀라웠다. 2009~2010년 2년 연속 4강 진입에 성공한 데 이어 2013년과 2014년에도 연속으로 8강에 올랐다. "한국럭비의 인기와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새 지평을 여는 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힘을 보태고 싶었다"는 것이 오 감독이 밝힌 이번 전국체전 출전 강행의 배경이다.

약 2개월 전 '체전 참가'가 가닥이 잡혔다. 팀 구성이 시급했다. 오 감독은 소속 선수들의 출전을 반대하는 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머리를 숙였다. 대한체육회 일본지사 조경남 전무이사(오 감독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진심을 전했다. 그토록 강경히 반대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지극한 정성이 통했다. 전부는 아니었어도 대학 1~2학년 유망주들을 다수 데려올 수 있었다. 물론 간절히 한국 방문을 희망했음에도 오지 못한 학생들이 훨씬 많았지만, 이 정도면 첫 술로 나쁘지 않았다.

여기에 또 하나의 특별한 이유도 있었다. 어린 선수들에게 한국을 경험시키고, 다양한 문화와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맛보게 해주고픈 스승의 마음이다. 오 감독은 "선수가 아닌, 인간으로서 성장이 최우선이다. 인간적 성숙함이 있어야 기술도 향상된다. 럭비는 화합과 협력의 스포츠다. 다양한 출신과 배경의 어린 친구들이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재일조선인 럭비 단일팀은 올해를 계기로 매년 전국체전에 꾸준히 출전해 한국럭비, 더 나아가 한국스포츠와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산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오사카조고 럭비부의 전성기를 일군 오영길 감독이 26명의 선수들을 이끌고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했다. 성적은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사상 첫 '재일조선인 럭비 단일팀'을 만들어 고국을 찾은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사진제공 | 대한럭비협회

도쿄올림픽부터 양궁 단체전 혼성 부문 추진 한국, 금메달 5개 독식 기대

본지 단독

세계 최강 대한민국 양궁에 조만간 희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4년 뒤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2020년 하계올림픽부터 양궁 세부종목에 혼성 부문이 편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남 일원에서 7일 개막해 13일 폐막한 제97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에서 만난 복수의 양궁인들은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양궁 종목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기존 남녀 개인·단체전에 혼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의 세계양궁연맹(WA) 회원국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기 방식은 남녀대표팀 엔트리에서 1명씩, 국가별 2명이 출전에 번갈아 활시위를 당기는

형태가 유력하다.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반대하는 등의 큰 변수가 없다면 모두 5개의 금메달이 걸린 올림픽 시상대에 남녀태극궁수들이 잇달아 올라가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을 볼 수도 있다.

국제양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꾸준한 변화를 추구해왔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부터 기록식 승부를 1대1 토너먼트로 바꿨고, 2012년 런던올림픽에선 개인전에 한해 세트제를 도입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선 아예 단체전에까지 세트제를 들여왔다. 표면적으로는 대중과의 소통, 경기 보는 재미를 더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국제양궁계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결국 한국의 독식을 막으려는 주변국들의 견제에 비쳐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의 변화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아주 긍정적이고 반가운 일이다. 거듭된 규정 개정과 방식 전환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정상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한국양궁이다. 하계올림픽 때마다 최고의 '효자종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 리우올림픽에선 아예 전 종목을 싹쓸이했다. 지금까지 양궁이 대한민국에 안긴 올림픽 금메달만 23개다. 특히 여자양궁은 리우까지 8차례 올림픽 단체전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예정대로 혼성 부문이 추가될 경우, 남녀태극궁수들이 관중석이 아닌 같은 사대에서 서로를 겨뤄보고, 각자의 실수를 만회해주고 외국남녀선수들과 간접적으로나마 성(性) 대결을 펼치며 흥미를 더 높일 수 있다.

아산·홍성 | 남정현 기자



함상명의 '레벨업 펀치'

"리우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게임 캐릭터 비유 전국체전 활약...도쿄올림픽까지 만렙 달성 다짐

함상명은 총남 일원에서 펼쳐진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매운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을 통해 자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켰다. 성향 | 남정현 기자

함상명(21·용인대)은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나선 대한민국 유일의 복서였다. 그리고 후회 없이 싸웠다. 당당한 도전 끝에 복싱 남자 56kg급(밴텀급) 16강전에서 탈락했다. "졌지만 기뻐다"는 뜻밖의 한마디는 모두를 뭉클하게 했다.

한국복싱은 당초 1명의 선수도 올림픽 본선에 나가지 못할 뻔했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주요 국제대회에서 국내선수들이 내리 탈락했다. 이 때 기적이 일어났다. 동일체급의 아르헨티나선수가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서 함상명에게 기회가 왔다. 문제는 짧은 시간이었다. 잠시 복싱을 잊고 쉬고 있던 터였다. 몸을 만들고 컨디션을 끌어올리기도 빠듯한데, 풍토병 예방접종 등 리우로 향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했다. 혹독한 훈련 때문에 늦잠을 자다 하마터면 한국선수단 본진이 이용한 전세기를 놓칠 뻔했다.

그로부터 2개월이 흘렀다. 함상명은 총남 일원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7~13일)에 출전해 매운 주먹을 휘둘렀다. 마침 전국체전 복싱 경기가 펼쳐진 지역은 매운 고추로 유명한 청양이었다. 자신을 '게임 캐릭터'에 비유한 그는 "능력치가 제로(0)였는데, 리우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에 계속 능력을 향상시키면,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었다.

그렇다고 리우올림픽이 마냥 편안했던 것은 아니다. "즐거웠다"지만, 극심한 긴장과 부담 속에서 애써 찾은 즐거움이 있었다. 4년 뒤에는 "여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다"고 말했다. 목표를 이루려면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련해야 한다. 스텝과 호흡, 체력이다. 복싱의 기분이 흔들린다고 했다. 전국체전이 끝나고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위한 연말 국가대표 선발전을 마친 뒤에는 일본에서 동계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게임의 나라'에서 스스로를 키우겠다는 의지다. 전국체전에서 양궁 등 일부 종목이 지상파TV로 생중계된 데 반해 복싱은 여전히 외면 받고 있는 아픈 현실도 공격의 자극제가 됐다.

"정답은 하나다. 내가 잘해야 한다. 재미있는 복싱을 보이지 못하면서 사랑을 구할 수는 없다. 대개 애니메이션 주인공과 게임 캐릭터들은 모두의 사랑을 받지 않느냐. 내 자신이 그 역할을 하겠다."

청양 | 남정현 기자

2016경주국제마라톤 16일 개최 에루페, 5번째 우승 도전

'동아일보 2016경주국제마라톤'(사진)이 16일 경주시민운동장을 출발해 경주시내를 거치는 42.195km의 풀코스다. 이번 대회 엘리트 풀코스 부문에 출전하는 선수는 남자 45명(초정 21·국내등록 25명), 여자 14명(국내등록 14명)이다. 엘리트 하프코스 부문에는 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올해 엘리트 풀코스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한국형 마라톤 황제'로 불리는 윌슨 로야에 에루페(케냐·청양군청)다. 국내 귀화를 위해 올 6월 청양군청과 4년 재계약을 한 에루페는 지난해를 포함해 이 대회에서 무려 4차례나 우승했다. 에루페는 국내에서 출전한 7개 대회에서 7회 우승(경주국제 4회·서울국제 3회)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는데, 올 3월 서울국제마라톤에서 2시간5분13초의 역대 국내대회 최고 기록을 작성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선 2시간4분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루페의 아성에 도전할 선수로는 신에 에르네스트 키프로노 응게노(케냐·개인최고 2시간7분57초)를 비롯해 니콜라스 킴보이(케냐·개

인최고 2시간6분33초), 펠릭스 킵치르치트 키프로티(케냐·개인최고 2시간6분59초) 등이 꼽힌다. 우승자에게는 5만달러(약 56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마스터스 부문에는 남자 6016명, 여자 1686명 등 총 7702명이 참가한다. 여성 참가자가 지난해(1151명)보다 535명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띈다. 경주국제마라톤은 1994년 동아일보가 경주에서 열린 '94동아국제마라톤 겸 제65회 동아마라톤대회'에 국내 최초로 마스터스 부문을 신설해 연례화하면서 국내 정류 마스터스 마라톤의 새 역사를 연 대회이기도 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TDK 스페셜대회 '3일간의 열전' 15일 개막...총 327.7km

(투르 드 코리아)

사이클은 동호인 인구가 엄청난 인기 스포츠다. 국내 최고의 동호인 라이더와 팀을 뽑는 투르 드 코리아(TDK) 2016 스페셜대회'가 15일 개막해 3일간의 열전을 치른다.

국민체육진흥공공단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경남 거창군(15일·117.6km), 산청군(16일·103.1km), 함양군(17일·107km) 일대 총 327.7km 구간에서 펼쳐진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코스다. 해당 도심 일대를 도는 코스에서 레이스가 벌어진다. TDK 스페셜대회는 2013년부터 엘리트대회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엘리트대회는 6월 개최됐다.

시상 부문은 엘리트국제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와 똑같다. 3개 구간의 기록 합계로 개인종합

우승자와 단체 우승팀이 결정된다. 산악왕, 스프린트왕, 베스트 영 라이더도 선정된다. 산악 구간과 스프린트 구간은 각각의 코스에 포함돼 있다.

동호인대회지만 원하는 사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자전거연맹이 2013년부터 시작한 '마스터스 사이클링 투어(MCT)' 대회에서 매해 쌓은 포인트가 전체 300위 안에 포함된 동호인만 TDK 스페셜 무대를 밟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개 팀이 늘어난 25개 팀이 출전한다. 각 팀은 4~6명으로 구성되는데, 6명이 나서는 팀이 대부분이다.

최용석 기자 gyong@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